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90年을 향한 目標

1. 自立된 100教会의 設立
2. 主님의 일꾼의 養成
3.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宣敎
4. 在日同胞의 삶에 同參하는 奉仕



THE GOSPEL NEWS

5月15日(火) <1990年> 第474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

電話 03(202)5398番

発行人 金栄植・編集人 金安弘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50円

昭和39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0474-24-7461

第四十一回 関東地方会

3世問題 声明書採択

第四十一回定期関東地方会
が四月三十日(月)調布教会
会館で開催された。
第一部開会礼拝は、副会長
金榮得長老の司会、尹宗銀
牧師の祈禱、鄭然元牧師の
聖書奉誦(エレミヤ三二・六
・十五)、会長 金君植牧師の
「内일을 믿는 사람」이란
説教が 있었다。金君植牧師
は「내일을 믿고 오늘을의 投
資을 하자」고 강조했다。
副会長 慶惠重牧師の司
会と金広照、吳大錫両長老
の 贈答으로 聖餐式이 執
行됐다。
第二部議事に 들어가 正
會員 五十一名中、三十四名
出席으로 會議가 進行、來
賓으로 教団東京教区代表로
伊藤義清牧師의 인사가 있
었다。伊藤義清牧師는 무엇
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의
會議進行에 言及、東京教区
가 열리지 못하는 애로를
피로했다。이어서 YMCA
에 赴任한 김진규 총무의 인
사、宋在根牧師의 紹介가 있
었다。
牧師加入式이 舉行됐다。
總會에 加入한 李俊鶴牧師
(東京メテスダ教会)、宣教師
金柄鶴牧師(浦和伝道所)、金
龍煥牧師(東京第一教会)、鄭
相熙牧師(横須賀教会)에 대
한 誓約이 있었다。加入한
新案件 討議에 李仁夏牧

師가 緊急提案으로 九一年
問題를 다루자는 動議에 重
点的으로 이問題를 論議하
기로했다。十分 휴게후 喪
重慶長老가 九一年問題
를 報告、日本語를 使用하
며、젊은 代議員들과 緊은
論議를 自由롭게 展開했다。
地方會參加者 이름으로 声
明書를 發表하기로 採択했
다。
閉會礼拝는 會長 金君植
牧師의 司會、李俊鶴牧師의
祈禱、李仁夏牧師의 説教本
文 使徒行伝一・六、七가
있었다。李仁夏牧師는「성경
의 능력에게 위탁하고 자
신의 제한을 告白、정신한
경단으로 임하자고 강조했
다。
地方會에서 採択된 獻議
案은 長老將立請願件이었다。



調布教会서 開催된 第41期 定期関東地方會

四月号 休刊
事情에 따라 福音新聞四
月号를 休刊하였음을 안내
드리며 讀者여러분의 諒해
를 바랍니다.
一九九〇年五月十五日
福音新聞

在日同胞의 法的地位保障을
本國5教團이 政府에 要望



在日同胞의 法的地位保障을 要求하는, 韓國教會의
聲明을 發表하는 김재열牧師(예장대신 부총회장)

總會代表團
本國政府・政黨에 建議
在日同胞의 法的地位要求
를 위한 代表團이 四月二
日을 訪問했다。
金榮植總會長을 團長으로
法的地位委員會、婦人會全國
連合會 代表 七名은 韓國
NCC人權委員會의 協力으
로 政府 政黨 街頭弘報等
을 展開했다。
이에 앞서 本國五教團과의
協議로 共同으로「在日同胞
法的地位에 關한 韓國教會
의 聲明」을 發表했다。
代表團과 韓國教會代表團
은 二十四日、鍾路五街에서
街頭弘報을 展開、많은 市
民으로부터 署名을 받았다。
午後二時、韓國教會五教團聲
明과 二十八團體連名의 建
議書、街頭署名을 傳達하러
하였으나 秘書가 받았다가
여 抗議를 하고 차후에 提
出키로했다。이어 外務部를
訪問、亞洲局長 金正琪氏와
面談、強力하게 在日同胞의
要求를 傳達했다。

二十六日에는 平民黨을 訪
問하여 副總裁、外務委員長
등과 面談하면서 韓國教會
의 聲明書를 傳達하고 實
態調査團의 派遣을 要請했
다。實態調査團은 教界 法
曹界、學界、在野等으로 在
日同胞의 實態調査단이 在
日同胞의 生存權이 決定되
는데 대한 不滿을 表明했
다。文榮煥外務委員長은 이
案에 贊同을 表明했다。
韓國NCC가 本國日報에
載는 本國新聞에서 呼
訴할수 있는 機會가 주어
졌다。
六教團이 聲明에서 要求
하는 五個項目은 ①日本政
府의 謝罪 ②法的地位의 一
元化한 子孫孫에 대한 永
住權부여 ③外登法의 根本
改正 ④民族教育의 保障、
⑤國籍事項의 徹底等이다。
이에 署名한 總會는 大韓
예수교長老會(統合)、同(合
同)同大神、基督教大韓監
理會、韓國基督教長老會 그
리고 總會。
盧泰愚大統領 訪日에 關해



駐韓國日本大使館앞에서 抗議하는 代表團과
韓國教會代表들

在日同胞의 法的地位保障에
關한 政策建議書에 署名한
團體는 韓國基督教教會協議
會人權委員會、韓國基督教社
會運動連合(全國牧會者正
義・平和實踐委員會外十三
團體、韓國女性團體連合、韓
國教會女性連合會(七團體、韓
國女教役者連合、韓國女神學
者協議會)。

韓國五教團과 NCC人權
委員會는 九一年問題對策特
別委員會를 組織키로 合議
를 보았다。同委員會는 本
國教會가 在日同胞問題를 宣
告의 課題로 삼기위해 各
教團에서 一名씩 委員을 내
기로했다。同委員會는 韓
國內弘報、署名運動등 그리고
在日同胞을 위한 선교주일
등의 실시를 위해 活動하
게 될것이다。
婦人會全國連合會에서도 聲
明書를 發表하였다。法的地
位問題가 解決되지 않을경
우 盧泰愚大統領의 訪日에
反對함을 밝히며、根本的解
決을 促求하고있다。
總會代表團은 金榮植總會
長、姜榮一法的地位委員長、
朴差喜婦人會會長、金安弘總
務、徐貞順總務、金貞女副會
長、南周也勸士。

医療 法人 キム医院

医学博士 金世榮
(大阪教会 長老)

大阪市生野区中川3丁目5-2
(ジョイフルマンション1F)

☎ (06) 752-4567

《診療科目》

内科(循環器・呼吸器・消化器)
小児科・麻酔科・理学診療科・放射線科

《診療時間》

AM 9:00~12:30, PM 5:30~8:00
休診(水・土曜日午後・日曜・祝日)

愛三産業株式会社

(株) 濟州カントリークラブ

代表取締役 白昌鎬

(東京教会 長老)

専務取締役 白一善

本社 〒130 東京都墨田区江東橋4-6-4

TEL (03) 633-7477(代)

FAX (03) 631-7703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有限会社 三愛

取締役社長 張鐘善

(名古屋教会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関西聖書神学院 卒業式 信徒伝道者 2名 배출

関西聖書神学院の卒業式
が三月二十三日午後六時三十分、大阪北部教会에서 挙
行됐다。
楊炯春牧師의 司會、金元
治牧師의 「하나님의 計劃」
이란 주제의 說教가 있는
후、學院長 金得三牧師가 卒
業生 한사람씩 卒業證書를
授与했다。
金徳成牧師의 勸勉、地方
會長 羅曾男牧師、카나다長
老敎海外宣敎部總務 데이브
牧師의 祝詞、祝辭가 있
었다。總會長 金榮植牧師의
祝禱로 卒業式을 마쳤다。
金得三 卒業生은 三名으로
文惠淑氏(大阪敎會)、李學業
氏(大阪西成敎會)、任福守氏
(大阪敎會)。

関西聖書神学院 九十年
度入學式이 四月八日午後三
時三十分、大阪北部敎會에서 舉
行됐다。
金榮植牧師의 司會、南宮
堧長老의 祈禱、羅曾男牧
師의 「永遠한 生命의 研究」
란 주제의 說教가 있었다。
金得三牧師의 勸勉、敎授
紹介가 있는후、金元治牧
師의 祝禱로 閉會했다。
金得三 入學한 神學生은 二
名이며、在學生 二名을 포함
해 四名이다。
學院長 金得三牧師(新約
神學)、敎務 金榮植牧師(旧

関西聖書神学院 二名新入生 맞아

約神學、楊炯春牧師(組織神
學)、羅曾男牧師(歷史神學)、
金元治牧師(實踐神學)、金徳
成牧師(宣敎學)。

投稿 歡迎

一、內容：總會、敎會에 關
한 地域運動
에 關하여 個
敎會現狀報告等
說教、やさしい
神學、간증、青
年會 婦人會等
의 活動報告
一、枚數：二千字以内

西南青年會修養會

大分県・湯布院に40人参加

去る四月二十九日から三十
日にかけて、大分県湯布院町
の別荘「うさぎ小舎」におい
て、西南地方青年會の春期修
養會が主の導きのうちに持た
れた。



西南青年會修養會に参加した青年たち

主を前に引き続き、「主
に導かれる在日キリスト者青
年」と定め、講師に折尾敎會
の李根秀牧師を迎えて、西南
地方青年會部長李海春牧師の
主役で約四十人の参加のもと

賑やかに、有意義な修養會を
もつことができた。
初日のプログラムは、主日
礼拝を終えて午後八時半から
李海春牧師の開會礼拝で始ま
り、オリエンテーションの後、
李根秀牧師による講演がもた
れた。ローマ人への手紙五・
三・五、エペソ人への手紙二・
十四・十六節をテキストに
深く掘り下げて聖書を理解す
るために、テキストに出てく
る言葉の意味を国語、日本語
そして英語、ラテン語などを
比較しながら学んだ。
二日目のプログラムは、宇
部敎會の崔永信牧師の早天礼
拝で始まり、朝食をとってか
ら李根秀牧師の二回目の講演、
前日の講演に引き続き、さら
に内容を深めての講演だった。
私たちの中にある、そして周
圍にある「中垣」を積極的に
取り除くことによって敵意を
減らし、平和を造り出すこと
ができる。「平和」というも
のは、口を開けて待っている
ものではなく、造り出すもの
であるということ、在日とし
て生きる私たちの現在の状
況の中で語ってくれた。
その後の分団、分団発表を
含め、聖書の中の一つ一つの
言葉と状況は、今に生きる言
葉であるから、現在の私たち
にとつての患難とは、我々に
とつて敵意の中垣とは何か、
平和とは？という問いかけに
対して、それぞれの答えは違
つても、在日として生きてい
くときの様々な問題を見つめ
積極的に考えていく。そのよ
うな意見が多く聞かれた。
閉會礼拝は、熊本敎會の崔
正剛牧師からのメッセージで
修養會のプログラムを終えた。
そのあと、庭で焼き肉、そ
して晴天に恵まれたので、別
府鶴見岳に登り、交流の時間
を持った。今回は特に、西南
地方各敎會から牧師たちが参
加してくださり、多くの助言
を下さつたことを感謝します。
初めての参加者も多く、また
新たな在日同胞と再会できた
喜びもあった。修養會の参加
者がこの日の事を心に留めて
信仰生活を送られることを祈
りつつ、感謝を持って報告し
ます。(通信 崔日承)

그리스도를 모신家庭

— 누가복음 10 : 38~42 —

金 柄 鎬 牧師(浦和伝道所)

說 教



生活의 가장 작은 出發點
이며 이것이 바로 形成
되지 않음때 우리 社會가
바르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우리는 本文에나
타난 아름다운 한 가정의 모
습을 통해 우리들의 家庭
에 새로운 價值觀이 形成
되고 하나님을 願하시는 아
름답고 모범적인 家庭이 되
기를 願합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
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
남매가 살고있는 집이 있
었습니다。이 집은 예루살
렘 가까이 있는 동네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停泊하여 쉬게하였
읍니다。오늘 本文에서도 예
수를 迎接하는 아름다운 모
습을 볼 수 있습니다。예수
님을 迎接하는 것, 즉, 예수
님을 우리의 家庭에 모시
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家
庭에 첫째 條件이 되어야
하며 基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많은 사람들은 家
庭이 幸福해지기 위하여 善
은 집과 훌륭한 家具들, 그
리고 옷과 먹을 것이 具備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
읍니다만 우리들은 그에 앞
서 예수를 모시는 것이 幸
福의 根源임을 알아야 합
니다。
어느 여름날 한 가난한
農夫가 논에서 일할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江에서 물에 떠내려오는 사
람을 發見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에 뛰어들어 그를
溺死直前に 救했고 잘看護
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알
고보니 그 사람은 그 나라
의 임금님이었습니다。임금
님은 農夫에게 고마운 마
음을 表示하면서 所願을 말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
니다。농부는 많은 것이 必
要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다
만 임금님께서 每年 自己
집에 오셔서 명일씩 지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그것 뿐이야 못
하겠느냐고 하면서 每年
를마다 열흘씩 와 있기로
約束했습니다。그 다음해 여
름이되어 임금님은 農夫의
집으로 가게되었습니다。그
런데 臣下들이 임금님이 居
하시게될 農夫의 집에 먼
지가 보였더니 形이 없
었습니다。그들은 急히 掃
은 것을 내고 農夫의 집
을 훌륭한 집으로 改造를
했습니다。그 밖에 침구와
식량과 모든 좋은 것을 마
련했습니다。이 農夫는 참
으로 賢明한 選擇을 하였
읍니다。이 家庭에 임금님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必
要한 모든 것이 뒤따라온
것입니다。萬王의 王이요 平
和의 王이신 예수 그리스도
를 迎接하는 모시는 것은
모든 것을 滿足시킬 수 있
는 동시에 家庭의 根本이
됩니다。聖書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그러므로 영
히 하여 이르기를 무엇할까
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을 입을까 하지말라... 너
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그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하
리라」(마 6 : 31-33)。
우리 그리스도인의 家庭
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礼拝하는
家庭이라야 하겠습니다。모
든 시기는 모시되 우리 家庭
의 中心에 모셔야 한 것입
니다。손님처럼 모시는 것
이 아니라 우리의 主人으
로써 모셔야 합니다。흔히
들 예수님을 迎接했다든지
모셨다든지 하면서도 그 中
심에 모시지 않고 사진액
자처럼 걸어놓고 한 번씩
쳐다보는 식이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家
庭이야말로 아름답고 安定
된 家庭입니다。또한 예수
님을 모신 베다니의 家庭
에는 주님의 발아래에서 말
씀을 듣는 아름다운 場面
을 볼 수 있습니다。하나님
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
씀하십니다。「오늘날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서 새기고 내
女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
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난 때에든지
이 말씀을 講讀한 것이니」
(신 6 : 6-7) 이와같이 말
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이 그리스도인의 家庭에는
있어야 합니다。
子女들에게 하나님을 섬기
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子女들에게 衣・食・住를提
供하고 여러가지 必要한 敎
育을 시키는 것도 重要하
지만 主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더 重要합니다。
지금의 때는 大學入試 工
夫가 더 重要하게 생각된
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
씀을 먹지 않고 좋은 大學
에 入学하고 卒業했을 때
에는 그의 靈魂은 이미 病
들어버려서 고치기 힘
들게 되는 것입니다。그때
에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해도, 아무리 父母를
恭敬하고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어버
린 후이기 때문에 이미 늦
은 것입니다。또한 예수님
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家
庭에는 奉仕의 心이 바
뻐있고 모심을 볼 수가 있
읍니다。예수를 모시고 말씀
을 듣고 봉사하는 모습에
서 아름답고 모범적인 그
리스도인의 家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祈禱와
讚頌소리만 들리는 가정은
뿐만 아니라 奉仕하는 家
庭이 되기를 願합니다。슈
바이처박사는「그리스도인의
家庭에는 두개의 門이 꼭
必要하다。하나를 하늘을 向
하여 항상 하나님과 交
際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의 門은 世上을 向해 열
려있어 奉仕에 힘쓰야 합
니다」라고 하셨습니다。

〈電々公社認定〉

構内交換機・ボタン電話

松下通信工業(株)専売代行店
(株)ナカヨ通信機特約店
東亜特殊電機(株)特約店

株式會社 高德通信工業

代表取締役 李 建 豪
(名古屋敎會 長老)

〒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話名古屋<052>431-3156(代)

牧山グループ

牧山通商株式会社, ホテル牧山, 百貨店
社会福祉法人 和奉財団, 柏樹福祉財団
等 他九社

会 長 崔 誠 元
(東京敎會 長老)

서울連絡처: 호텔牧山 02-739-2917

婦人服製造卸

めぐみ 恵 商店

代 表 金 容 秋
(大阪敎會 長老)

TEL(06) 245-5306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557地下1階南側

〒541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

金桂 昊牧師（岐阜教会）

を与えたか、彼らの名まえを聞いただけで、感謝の涙を流す母親たちがいたのだらうかと。

わたしの質問に端を発して、次々に議論が繰り広げられた。その議論の影響をうけてか、富豪の影も薄くなってしまった。あたかも、それは夏の夜の快い風が、急に肌を刺すような冷風に変わったかのような感じであった。ついに、だれもが予定より早目に寝室へ引き上げてしまった。

それから何年か経過したが、わたしはジェシー・リバモアを客死した。これらの人々の晩年はいずれも悲劇につきまとわれていた。ジェシー・リバモアを除いて、悲劇は彼らの死の枕辺まで難れなかった。

ところが、ある夜、わたしはラジオのニュースを聞いていると、あのすてきなヨットに招待して、シカゴ・ホテルの集まりのことを話してくれた人の運命が報じられた。ジェシー・リバモアは、あるホテルの洗面所で頭をビストルで射ち抜いた、というのである。(つづく)

ファイリツプ・朴
(RAIK協力幹事)

あり、兄弟姉妹である。もともと大切なことは、神が抑圧された者の神であるという認識を私がつたことである。不正に苦しむ人々が神の特別な愛の関心

えば、私がニューモークで働いたとき、長老教会の老会の職員募集に応募したが、私の先祖が韓国人であるという理由で結局、拒否された。私はあのような差別に

神がその民に期待しているものは、正義であるからである。不正を体験した者たちは、アモスのような予言者となるように召されているのである。アモス、予言者は「公正を水のように、正義をつきることのない小川のように流れさせよ」と宣告した。

不正を体験した者はみな怒る。私は子供の時、私の

が適切な方法であると思う。私たちは私たちの社会のあらゆる領域の中で正義を追求しなければならぬ。そして正義を追求することはしばしば正しい怒りから始まる。私たちはみな、ここ日本でも、また、不正のあるところではどこでも、正義を実現するために働きかけるように召されているのである。(つづく)

李 應 周 牧師(岡崎教会)

聖書는 審判에 對한 事
을 分明히 밝히고 있다.
信者는 審判을 믿고 참
生活을 다짐해야 한다.

一、主任의 審判
(롬 14:10)
主任께서는 審判할 날(日)
에 對한 審判이 있을것을보
여주는 實際의인 事件들이
永에 영소와 같은 者는 永
罰에 羊과 같은 信者는 永
生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다.

二、審判의 種類
(1)現世審判..聖書에는 罪
에 對한 審判이 있을것을보
여주는 實際의인 事件들이
永에 영소와 같은 者는 永
罰에 羊과 같은 信者는 永
生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다.

(3)懲戒의 審判.. 이것은 사
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깨닫
고 바른 길을 가게하시려
는 目的으로 審判하신다.
내 아들아, 主의 懲戒하심
을 輕히 여기지 마며, 그에
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落

作定하였다. 그러나 그
 을 啓示하지는 않았
 主任은 온天下를 公義
 審判할 날을 定하시고
 지는데 이 날을 하나님
 震怒의 날이라고 했다.
 이날에 각사람에게 그
 대로 報應하신다고 記錄
 다(行傳 17:21, 卷 2:5)
 (傳 3:17).
 主任은 모든 人間의 行
 와 모든 隱密한 일을 善惡
 에 審判하시고 또한 隱密
 계 보시며, 隱密하게 갚
 신다고 했다(傳 12:14, 마
 18).
 또한 각사람이 自己일을
 各 하나답게 直告하리라
 使徒바울은 傳하고 있
 롬 14:10, 12).
 그리고 主任께서 父의 榮
 으로 그天使들과 함께 오
 니 그때에 각사람의 行
 대로 갚으리라(마 16:27)
 이때에 모든 사람은 審
 判을 受할 자에게 直告
 記錄되어 있다. 例를 들자
 면 노아洪水 審判은 그 당
 時에 貫盈한 罪를 審判하
 는 同時에 最後의 大審判
 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
 다(創 6章과 8章까지). 그리
 고 소돔과 고모라 城에 내려
 진 불審判이다. 이것은 그時
 代의 罪를 審判하는 同時에
 다음 世代人들에게 주는 하
 나의 審判의 預言이다(創 19).
 그리고 에스더書에 記錄
 된 하만總理의 事件도 現
 世에서 받은 審判이다. 또
 한 主目께서는 望臺에 치
 어 죽은 열여덟 사람의 事
 件에 對해서 만일 悔改치
 아니하면 이와같이 亡하리
 라(누가 13:1-5)고 예루
 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
 신 警告의 말씀이다. 이것은
 主後七十年 예루살렘의 亡
 하므로 主님의 말씀이 應하
 였던 것이다. 個人的으로도
 베드로使徒앞에 섰던 아나
 나님께 懲戒받는 者에게는 福
 이 있다(히 12:5, 13, 유
 5:17)라고 했다. 具體的
 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百
 姓이 40年間 曠野에서 流離
 彷徨한 것은 그들의 不信仰
 과 不順從을 懲戒하신 것이
 다(民 14). 그리고 바벨을捕虜
 70年間的 苦生도 偶像을 섬
 긴 이스라엘百姓에게 내린
 하나님의 懲戒의 制裁이라고
 말할 수 있다(代下 36:12).
 즉 民族의 罪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証拠를 懲戒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審
 판이 있는 것은 當然한 것
 인 同時에 여러가지 面으로
 懲戒를 통하여 地獄의 審判
 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世
 상에 보내신 것은 世上을 審
 判하러 하심이 아니요, 지
 로 말미암아 世上이 救援
 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太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11)4398